

사회적 지원이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Infant Mother's Parenting Behavior
: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ing Stress and Depression

영진사이버대학 아동복지전공

조 교 수 문 영 경*

Division of Social Welfare, Yeungjin Cyber College

Assistant Professor : Moon, Young-Kyung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infant mother's parenting behavior and mediating effects of parenting stress and depress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maternal parenting behavior. Participants were 2078 mothers of infant (4-10 month) in Korea. Data were analyzed by Structural Equation Model.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social support showed direct effect on maternal parenting behavior. That was the more mother receive social support, mother show responsive and warmer parenting behavior on infant.

Second, maternal parenting stress mediated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maternal parenting behavior. That was the more mother receive social support, the less mother experience parenting stress, which in turn contribute to responsive and warm parenting behavior.

Third, Maternal depression didn't mediate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maternal parenting behavior. However, social support and maternal parenting stress showed direct effects on maternal depression. This research suggest the needs for development of diverse social support policies and program to help mothers reduce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depression.

▲주요어(Key Words) :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Infant mother) 양육행동(parenting behavior), 양육스트레스(parenting stress), 우울(depression)

I. 서 론

영아기는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지적 발달 등 여러 발달의 영역에 있어서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시기라 볼 수 있다.

이 시기 영아는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하고 발달을 이루어 나가며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 시기 영아가 최초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접하게 되는 미시적 환경으로서 어머니는 영아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본인의 양육행동을 형성하게 된다.

* 주저자 · 교신저자 : 문영경 (E-mail : moonyk93@naver.com)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향후 자녀와의 관계 및 아동발달

에 지속적으로 주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Maccoby & Martin, 1983). 따라서 처음으로 자녀와 관계를 맺게 되는 영아기 시기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는 필수적이라고 본다.

어머니 양육행동의 중요성에 의해 여러 학자들(Belsky, 1984; Moon, 2008)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관계를 고찰해 왔는데, 이에 대해 Belsky(1984)는 양육행동은 복잡적이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산물로 부모의 발달사, 부모의 인성, 부부관계, 부모의 직장, 사회적인 지지 체계 및 아동의 특성 등 부모-아동간의 관계가 전개되는 상황 등이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하였다(Moon, 2008; 재인용). 또한 Moon(2008)은 부모-자녀 관련 국내학술지 논문의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부모의 발달사, 부모의 인성특성, 양육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요인, 부부관계, 사회관계망, 직장, 보육의 질, 경제상황, 문화 등의 맥락적 요인, 아동의 특성이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들로 연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도 이러한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변인을 연구한 Lee(2011)는 영아 변인 중에서 출생순위와 모유수유여부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쳐, 출생순위가 낮을수록, 모유 수유를 할수록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어머니 변인 중에서는 양육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소득활동 여부, 정서적 자녀가치, 학력이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 특성 변인 중에서는 사회적 지원이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러한 여러 변인들 중 양육스트레스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결정지을 수 있는 주요한 변인으로 어머니의 인지적 측면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질을 결정짓는 주요개념으로 소개되고 있다. 양육스트레스란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부모가 인지하는 곤란정도나 부담감을 의미하는데, 특히 자녀가 영아기 시기인 어머니의 경우 그 역할은 다른 시기보다 더욱더 중요하나 어머니는 본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변화를 겪으며, 동시에 가족구조와 가족구성원 간의 관계 및 역할변화까지 겪는 급격한 삶의 변화를 겪을 뿐 아니라 처음 경험하는 양육의 경험으로 인해 다른 시기보다도 더 많은 양육스트레스를 겪게 된다(Song & Kim, 2008). 실제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한국아동패널 자료에 따르면 영아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은 다소 높은 수준(Sho et al., 2010)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도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로 하여금 적절

치 못한 양육행동을 하게 만든다(Abidin, 1990). 즉, 어머니가 높은 수준의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할수록 자녀에게 권위주의적으로 통제를 하거나, 강압하거나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양육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자녀를 합리적으로 지도하고 애정적으로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Moon, 2005). 또한 영아기 어머니를 대상으로 할 때에도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어머니들은 자녀와 다양한 유형의 신체접촉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Kwak, 2004).

또한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경험할 수 있는 양육의 스트레스는 부모로서의 능력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하고 위축하게 하며(Mercer, 1985), 산후 우울의 정도를 심하게 하기도 하는 등(Ahn, 2004; Kwon, 1997; Kwon et al., 2006), 어머니의 정신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지속적인 특성이 있어 그 특성이 크게 변화하지 않으며, 아동이 발달하는 동안에도 아동의 부적응이나 문제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Crnic, Gaze & Hoffman, 2005). 따라서 아동발달 연구자들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또한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중 우울은 시대나 국가, 사회에 관계없이 일정한 발생빈도를 보이므로 출산 후 어머니가 경험할 수 있는 일반적인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집단을 대상으로 한 Shin(2011)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도 출산 후 4개월 까지 약 27%의 어머니들이 정도에서 중도까지의 우울 기분을 경험한다고 하여(Shin, 2011), 많은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어머니의 역할과 활동을 재조명하게 하는 과정에서 우울감을 경험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출산 직후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슬프고 우울한 기분(postpartum blues)은 3~4일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호전되지만, 산후우울(postpartum depression)은 출산 후 10일에서 길게는 1년까지 지속되기도 한다(Kwon, 1997). 이러한 어머니의 우울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나타날 수 있으나 특히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을 때 더 심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hn, 2004; Kim, 2004; Kim, 2007; Kwon, 1997). 또한 우울한 어머니는 잠을 못자고 쉽게 피곤해지며, 만사에 의욕을 잃는 등 정서적으로 자녀에게 몰입되어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몰입해 있어 아동의 요구에 민감하고 따뜻하게 반응하지 못하며(Crnic & Greenberg, 1985), 돌발적이며 통제적이고 과다 자극적인 방식으로 영아와 상호작용을 하거나 수동적이고 자극이 부족한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등 (Cohn et al., 1986; Field et al., 1990; Malphurs et al., 1996) 적절하지 못한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여러 학자들(Belsky, 1984; Kim & Kim, 2008; Lee,

2008; Pyun & Choi, 2011; Yang, 2010; Yune, & Oh, 2010)은 어머니가 외부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원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우울과 같은 어머니 개인적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으로 꼽고 있다. 사회적 지원은 필요한 시기에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관계망이나 친밀한 관계에 의해 제공되는 인지된 혹은 표현된 도움 또는 실질적 도구적 도움을 의미한다(Lin, Dean, & Ensel, 1986).

사회적 지원은 가족이나 친척, 친구 등에 의해 제공되는 비물질적 형태의 도움인 비공식적 지원(Amstrong, Lefcovich & Unger, 2005)과 사회복지제도 또는 지역사회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물질적 도움인 공식적 지지(Stevenson, Henderson, & Baugh, 2007)를 포함하며, 제공하는 도움의 형태에 따라 정서적, 정보적, 도구적, 평가적 지원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정서적 지원이란 존경, 애정, 신뢰, 관심, 경험의 행위를 포함하며, 정보적 지원이란 개인의 문제에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도구적 지원은 일을 대신해주거나, 돈, 물건을 제공하는 등의 직접적인 도움을 의미한다. 또한 평가적 지원이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해 주거나 부정하는 등의 자기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Park, 1985).

사회적 맥락에서 제공되는 대처자원으로서 사회적 지원은 바람직한 부모역할에 대한 정보나 충고 및 양육을 위한 도구적인 원조를 해 줌으로써 부모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자원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지원은 일반적으로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저소득층 어머니나 발달장애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지지하는 중요한 환경적 체계로서 연구되고 있다(Cohen, & Syme, 1985; Cox et al., 1989; Ganster & Bart, 1988; Koeske & Koeske, 1990; Williams, Wire, & Donald, 1990). 이러한 연구들에서 사회적 지원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키며(Pyun & Choi, 2011; Lee, 2008). 산후 우울을 경험하는 어머니의 우울감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Kim, & Kim, 2008). 따라서 사회적 지원으로 인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나 우울감은 경감되거나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또한 가족관계나 배우자의 지원, 사회적 관계망 등의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원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Reis, & Linda Bennet, 1986), 영아기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에도, 사회적 지원은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쳐 외부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은 어머니는 영아에게 온정적이며 반응적으로 행동하였으며(Lee, 2011), 영아에게 긍정적 보상을 많이 하며, 정서가 단조롭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Yang, 2010).

이와 같이 영아기 어머니를 대상으로 할 때, 사회적 지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우울,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측되나 수행된 대부분의 연구들이 대부분 일부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탐색하거나(Lee, 2010), 일부 요인들 간의 관계를 단편적으로 분석하고 있어(Kim & Kim, 2008; Yang, 2010), 사회적 환경으로서의 사회적 지원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우울,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일부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나 일부 변인들 간의 관계를 밝혔을 뿐 네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경로를 밝혀내고 있지는 못하고 있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들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그들 간의 관계의 경로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이들 간의 관계는 Belsky(1984)의 양육행동의 결정요인: 과정모델에 의해 유추해 볼 수 있다. Belsky(1984)는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들의 관계에 대해 기존의 연구결과를 통합하여 양육행동의 결정요인: 과정모델을 제안한 바 있다. Belsky(1984)는 기존의 아동양육 및 아동학대와 관련된 논문들을 종합하여, 아동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연구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모델에 근거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을 부모행동을 결정하는 3가지 영역 즉,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 아동의 특성, 그리고 스트레스와 사회적인 지원과 같은 맥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사회적 지원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직접적으로도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안하였는데, 즉, 사회적 지원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간접적인 영향으로 사회적 지원체계가 어머니의 개인 심리적인 특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그 결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사회적 지원체계는 심리적으로 건강한 성인을 만들고 그 결과 아동에게 반응적이며 엄격하지 않으며, 따뜻하고 자극적인 양육행동을 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 반대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특히 심리적으로 우울한 어머니들은 아동으로 하여금 적대적이고 거부적인 양육행동을 하며, 그로 하여금 아동의 기능에 장애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통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대부분 아동학대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일반 어머니의 양육행동에도 적용하고 일반화 할 수 있다고 하여 그의 모델이 아동학대와 같은 특정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뿐만 아니라 일반 어머니들의 양육행동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종합해 보면, 출생 1년 미만의 영아기의 경우 여러 발달의 영역에 있어서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시기이며 이시기의 영아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며 상호작용을 통해 영아 발달 및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영아기 어머니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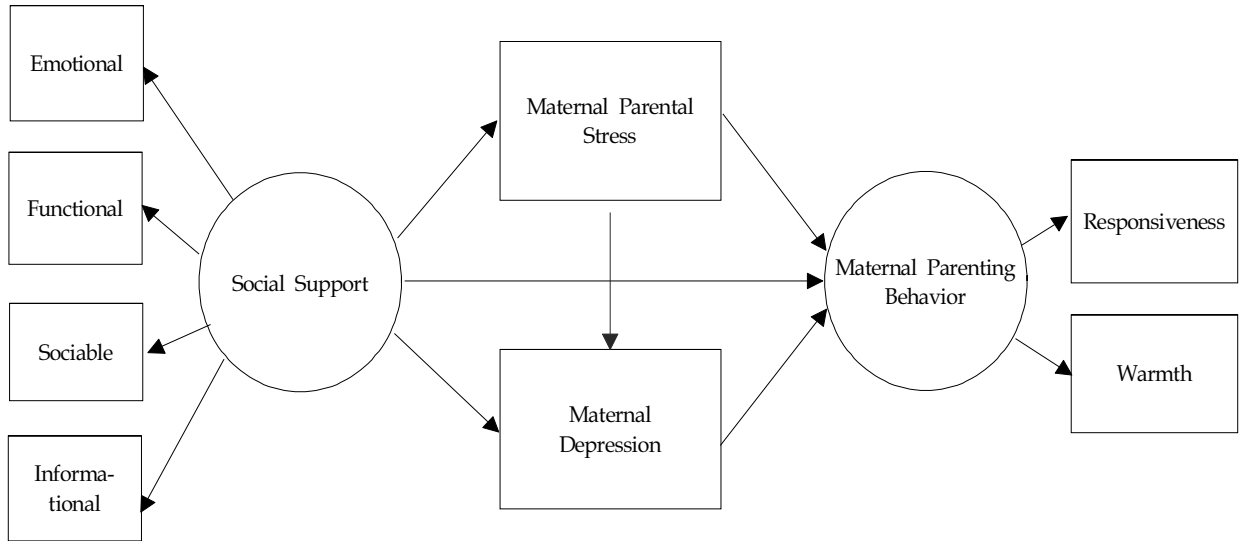


Figure 1. Research Model

양육행동에 대한 탐구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Belsky(1984)가 제안한 양육행동의 결정요인에 근거하여 볼 때, 사회적 지원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즉,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을 매개로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어머니와 영아를 대표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전국적 표본조사를 거친 한국아동패널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영아기 어머니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원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특히, Belsky(1984)가 제안한 양육행동의 결정요인에 근거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중 맥락적 요인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에 관심을 두고,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지원은 가족 외 사회적 체계로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며, 그 과정에는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 즉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우울이 매개적 역할을 하며, 사회적 지원체계가 어머니의 심리적 건강성, 즉 양육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감소시켜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사회적 지원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관련된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들 변인을 중심으로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적절한 양육행동을 구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사회적 지원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사회적 지원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사회적 지원은 어머니의 우울을 매개로 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1>에 대한 가설

[가설 1] 사회적 지원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2>에 대한 가설

[가설 2] 사회적 지원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3>에 대한 가설

[가설 3] 사회적 지원은 어머니의 우울을 매개로 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육아정책 연구소에서 2008년에 조사한 한국아동패널의 대상자인 영아(남아 1,057명, 49.2%, 여아 1,021명, 47.5% 범위 4~10개월)의 어머니 2,078명이다. 영아의 월령은 4개월이 7.2%, 5개월이 58.1%, 6~10개월이 32.5%이며, 4개월부터 10개월의 영아까지 분포되어있다.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정책적인 시사점을 위해 각 아동과 가족이 속한 지역사회와 국가수준의 특성을 구조화된 설문지에 근거하여 수집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인 2008년에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 영아 어머니의 연령은 19~46세이며 평균연령은 만 31.3세 (SD=3.7)이었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이하가 31.2%이며, 대졸이 63.2%, 대학원 이상의 학력은 5.6%이었다. 월평균 가구 소득은 201만원~300만원이 33.1%로 가장 많았으며, 101~200만원이 22.7%, 301~400만원이 22.1%, 500만원 이상이 7.6%, 그리고 100만원 이하가 5.8%이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우울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였다.

1) 사회적 지원

사회적 지원은 Lee and Ok(2001)의 도구와 Cho et al. (1998)의 도구를 기초로 육아정책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에서는 가족 외 모든 사람(시댁 및 친정식구, 친척, 친구)와 단체(예: 교회, 복지관) 등을 포괄하는, 즉 구성원의 유형이나 지지체계에 상관없이, 한 가정이 외부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있다. 이 도구는 개념적으로 정서적 지원, 도구적 지원, 사교적 지원, 정보적 지원으로 나뉘어지는데, 정서적 지원은 개념적으로는 '내가 외로울 때 솔직히 털어놓고 의지할 수 있다', 도구적 지원은 '내가 급하게 돈을 써야 할 때 빌려준다', 사교적 지원은 '특별한 일이 없어도 서로 자주 방문하거나 전화한다.', 정보적 지원은 '중요한(주택구입 등)을 결정할 때 정보를 준다' 등과 같이 가족, 친구, 이웃 등 대인관계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받는 도움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총 12개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 중에서 평정하는 Likert 척도이다. 가능한 점수 범위는 정서적 지원 2~10점, 도구적 지원 3~15점, 여가적 지원 3~15점, 정보적 지원 2~1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사회적 지원에 대한 신뢰도는 정서적 지원 .72 도구적 지원 .79 사교적 지원 .78 정보적 지원 .86이었다.

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PSI-SF)를 기초로 Kim and Kang(1997)이 한국형으로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 중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만을 발췌하였으며, 적절하지 않은 2개의 문항을 제외하여 척도를 구성하였다.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는 부모역할 수행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과 부모가 인지하는 어려움을 반영한다. 이 도구는 총 10개 문항으로 '나를 성가시게 하는 일들이 몇 가지 있다',

'아이 때문에 모임에 가면서도 그리 즐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의 문항을 포함한다. 이 도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 중에서 평정하는 Likert 척도이며, 가능한 점수 범위는 10점-5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신뢰도는 .84이었다.

3) 어머니의 우울

어머니의 우울은 Kessler 우울척도(Kessler et al., 2002)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미국 보건면접조사(US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NHIS)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을 측정하기 위하여 간편형으로 제작된 도구이며, DSM-IV에 대한 구조화된 임상적 면담(Structured Clinical Interview for DSM-IC, SCID)을 실시하여 정신장애군과 비장애군을 변별하는 등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도구이다. 이 도구는 총 6개 문항으로 '지난 30일 동안 무기력하셨습니다?', '지난 30일 동안 너무 슬퍼서 뭘 해도 기운이 나지 않으셨습니까?'의 문항을 포함한다. 이 도구는 '전혀 안느낌(1점)'부터 '항상 느낌(5점)' 중에서 평정하는 Likert 척도이며, 가능한 점수 범위는 6점-5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우울에 대한 신뢰도는 .84이었다.

4)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Bornstein et al. (1996)이 개발한 양육행동(The Parental Style Questionnaire, PSQ)을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이 중 사회적 양육유형 6개 문항을 요인분석하여 온정성과 반응성의 2개 요인으로 나누었다. 각 요인은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5점 척도이다. 각 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온정적이고 반응적임을 의미한다. 온정성에 대한 신뢰도 Cronbach α =.72, 반응성에 대한 신뢰도 Cronbach α =.74이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및 Amos 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계처리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문항들 간의 내적 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셋째, 측정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넷째,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에서 최대우도법을 사용하기 위한 정상분포 가정의 충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각 측정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였다. 다섯 번째, 연구문제의 분석을 위해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측정

모형은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모형검증을 위한 미지수와 부합지수들의 계산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다. 적합도는 적합지수가 표본크기에 따라 값이 크게 변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도를 반영하는 표준카이제곱을 선정하였고, 절대적 적합도지수로는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모형 오류와 간명성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 RMSEA 값, 상대적 적합도로는 TLI와 CFI를 선정하였다. 또한 매개 효과는 Bootstrapping을 통해 해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측정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측정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사회적 지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양육행동에 대한 가능한 점수범위와 점수범위, 평균 및 표준편차는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사회적 지원 중 정서적 지원의 평균은 8.31으로 이를 문항으로 나누었을 때 4.15로 높은 수준이었다. 도구적 지원 12.56으로 이를 문항으로 나누었을 때 4.19로 높은 수준이었다. 여가적 지원은 12.02으로 이를 문항으로 나누었을 때 4점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정보적 지원 8.16으로 이를 문항으로 나누었을 때 4.08로 높은 수준이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영아기 자녀를 둔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은 가정 외로부터 정서적 지원, 도구적 지원, 여가적 지원, 정보적 지원을 높은 수준으로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27.42로

이를 문항으로 나누었을 때 2.72로 중간값 2.5 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어머니의 우울은 11.63으로 이를 문항으로 나누었을 때 1.16으로 아주 낮은 수준이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반응성 12.21으로 이를 문항으로 나누었을 때 4.07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온정성은 12.09으로 이를 문항으로 나누었을 때 4.03으로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영아기 자녀를 둔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는 다소 높은 수준이며, 우울은 낮은 수준이며, 반응적이며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정서적 지원은 도구적 지원($r=.74, p<.001$), 여가적 지원($r=.67, p<.001$), 정보적 지원($r=.63, p<.001$), 양육스트레스($r=-.19, p<.001$), 어머니의 우울($r=-.19, p<.001$), 어머니의 반응성($r=.16, p<.001$), 어머니의 온정성($r=.14, p<.001$)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정서적 지원($r=-.19, p<.001$), 도구적 지원($r=-.18, p<.001$), 여가적 지원($r=-.19, p<.001$), 정보적 지원($r=-.15, p<.001$), 어머니의 우울($r=.52, p<.001$), 어머니의 반응성($r=-.33, p<.001$), 어머니의 온정성($r=-.14, p<.01$)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우울은 정서적 지원($r=-.19, p<.001$), 도구적 지원($r=-.20, p<.001$), 여가적 지원($r=-.19, p<.001$), 정보적 지원($r=-.16, p<.00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r=.52, p<.001$), 어머니의 반응성($r=-.22, p<.001$), 어머니의 온정성($r=-.26, p<.001$)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어머니의 우울은 정서적 지원($r=-.19, p<.001$), 도구적 지원($r=-.20, p<.001$), 여가적 지원($r=-.19, p<.001$), 정보적 지원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for Major Variables

	Variables	Range	Minimum	Maximum	M(SD)
Social Support	1. Emotional	2-10	2	10	8.31(1.43)
	2. Functional	3-15	3	15	12.56(1.97)
	3. Sociable	3-15	3	15	12.02(2.20)
	4. Informational	2-10	2	10	8.16(1.47)
	5. Maternal Parenting Stress	10-50	10	50	27.42(6.19)
	6. Maternal Depression	6-30	6	30	11.68(4.22)
Maternal Parenting Behavior	7. Responsiveness	5-15	5	15	12.21(1.72)
	8. Warmth	5-15	6	15	12.09(1.63)

Table 2. Correlation of Variables

Variables	1	2	3	4	5	6	7	8
1	1							
2	.74***	1						
3	.67***	.74***	1					
4	.63***	.70***	.69***	1				
5	-.19***	-.18***	-.19***	-.15***	1			
6	-.19***	-.20***	-.19***	-.16***	.52***	1		
7	.16***	.16***	.15***	.16***	-.33***	-.22***	1	
8	.14***	.15***	.13***	.15***	-.41**	-.26***	.63***	1
Skewness	-.79	-.72	-.44	-.66	.13	.66	-.46	-.49
Kurtosis	-.71	-.73	-.16	-.54	.05	.54	.56	.76

1. Emotional Social Support, 2. Functional Social Support, 3. Sociable Social Support, 4. Informational Social Support, 5. Maternal Parenting Stress, 6. Maternal Depression, 7. Maternal Parenting Behavior-Responsiveness, 8. Maternal Parenting Behavior-Warmth
 ** $p < .01$, *** $p < .001$

($r = -.16, p < .001$), 어머니의 반응성($r = -.22, p < .001$), 어머니의 온정성($r = -.26, p < .001$)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어머니의 반응성은 정서적 지원($r = .16, p < .001$), 도구적 지원($r = .16, p < .001$), 사교적 지원($r = .15, p < .001$), 정보적 지원 ($r = .16, p < .00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r = -.33, p < .001$), 어머니의 우울($r = -.22, p < .001$), 어머니의 온정성($r = .63, p < .001$)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원이 많을수록 어머니는 양육스트레스를 덜 느끼며, 우울감을 덜 느끼며, 영아에게 반응적이며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구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덜 느낄수록 어머니의 우울감은 낮으며, 영아에게 반응적이며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구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우울감을 덜 느낄수록 영아에게 도구적이며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구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볼 때, 정서적 지원, 도구적 지원, 여가적 지원, 정보적 지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우울감,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모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변인들 간 관계의 탐색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측정변인들이 정상분포를 이루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측정변인에 대한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모든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가 1 미만으로 나타나, 자료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기 위한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측정모형의 검증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얼마나 잘 측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사회적 지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우울, 어머니의 양육행동 등 4개의 잠재변인들이 모형이 포함되었다. Amos 측정변인의 검증을 위해서는 잠재변인 하나에 2개 이상의 측정변인이 필요하나 본 연구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이 하위요인이 없는 단일요인들인 관계로 척도에 포함된 문항들을 두 개의 꾸러미에 무작위로 배치하여 임의의 2개 하위요인을 만들었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해 본 결과, 잠재변인을 설명하고 있는 측정변인들의 경로 계수는 모두 유의미하였으며,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X^2 = 81.159, RMSEA = .029, CFI = .995, TLI = .991$).

4. 연구모형의 검증결과

사회적 지원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모형을 평가하기 위하여 모델에 대한 적합도 지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과 같이 연구모형은 표준카이자승치는 2.799, RMSEA는 .029, NFI는 .993, CFI는 .995, TLI는 .991로 적합도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Model Fit Summary of Research Model

χ^2	df	NFI	CFI	TLI	RMSEA	95% CI for RMSEA	
81.159	29***	.993	.995	.991	.029	.022	.036

*** $p < .001$

Table 4. The Maximum Likelihood Estimates of Research Model

Paths	Regression Weight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	S.E	C.R
Path 1	-.630	.108	.03	4.143***
Path 2	-.630	-.234	.07	-9.005***
Path 3	-.191	-.480	.01	-13.241***
Path 4	-.187	-.101	.04	-4.620***
Path 5	-.011	-.004	.02	-.131
Path 6	.391	.568	.02	23.345***

Path 1 : Social Support → Maternal Parenting Behavior

Path 2 : Social Support → Maternal Parenting Stress

Path 3 : Maternal Parenting Stress → Maternal Parenting Behavior

Path 4 : Social Support → Maternal Depression

Path 5 : Maternal Depression → Maternal Parenting Behavior

Path 6 : Maternal Parenting Stress → Maternal Depression

*** $p < .001$

Table 5. Direct and Indirect Effect

Effect	Path	Estimate	SE	95% Confidence Bootstrap percentile	
Direct	1	.094**	.026	.054	.145
	2	-.212**	.024	-.680	-.454
	3	-.477*	.033	-.215	-.164
	4	-.090**	.021	-.220	-.095
	6	.566**	.019	.362	.418
Indirect	7	-.210**	.024	-.266	-.173
	8	.106**	.021	.084	.133

* Bootstrap Estimate는 standardized된 자료임.

* Path 7: Social support → Maternal Depression

Path 8: Social support → Maternal Parenting Behavior

* $p < .05$, ** $p < .01$

연구모형의 경로와 표준화 계수는 <Figure 2> 및 <Table 4>와 같다.

연구모형과 관련된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Table 4와 같이 사회적 지원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으로의 직접경로, 사회적 지원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로의 직접경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으로의 직접경로,

사회적 지원에서 어머니의 우울로의 직접경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로의 직접경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의 우울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으로의 직접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해서 구조방정식모형에 대한 연구가설을 다음과 같이 검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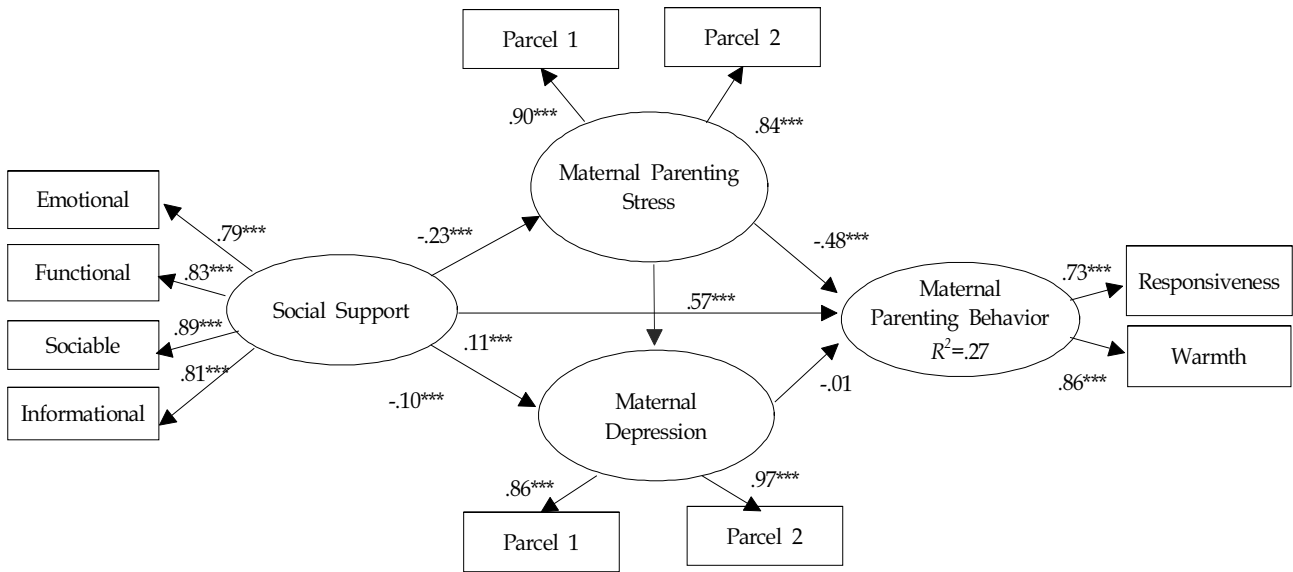


Figure 2. Summary of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Variances & Model Fit of Research Model

첫째, 사회적 지원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은 지지되었다. 즉, 사회적 지원이 많을수록 어머니는 적절한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지원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는 지지되었다. 즉, 사회적 지원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부적 영향을 미치며,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낮아지며 그 결과 어머니는 더욱 반응적이고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지원은 어머니의 우울을 매개로 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은 기각되었다. <Table 4>와 같이 사회적 지원이 많을수록 어머니의 우울 정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어머니의 우울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결과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먼저, 사회적 지원이 양육스트레스를 거쳐 어머니의 우울로 가는 경로를 살펴보면, 95% 신뢰구간이 (-.266 ~ -.173)로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유의도 수준 5%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원에서 양육스트레스를 거쳐 어머니의 양육행동으로 가는 경로를 살펴 보면 95% 신뢰구간이 (.084 ~ .133)로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유의도 수준 5%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Belsky(1984)가 제안한 양육행동의 결정 요인: 과정모델에 근거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중 맥락적 요인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에 관심을 두고, 사회적 지원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지원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주요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지원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원이 어머니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는 어머니들이 영아에게 긍정적인 보상을 많이 하며 정서가 단조롭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Yang(2010)의 연구 및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는 영아 어머니들이 반응적이며 온정적으로 행동하였다는 Lee(2011)의 연구와 일관한 결과이다. Belsky(1984)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맥락적 요인으로 사회적 지원을 꼽고 있으며, 본 연구결과를 통해 불 때에도 친척, 이웃, 친구 등 배우자 이외의 타인들에 의해 제공되는 사회적 지원은 어머니가 적절한 양육행동을 하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적 환경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포함된 애정, 신뢰, 관심 경험 등을 나눔으로서 어머니를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것, 그리고 개인의 문제에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일을 대신하거나 돈, 물건 등을 제공하는 등의 도움, 어머니의 행위를 인정해 줌으로서 어머니가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도록 돕는 등의 사회적 지원은 영아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어머니로 하여금 영아에게 적절하게 반응하고 온정적으로 대하도록 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사회적 지원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원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적 지원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켜 그 결과 어머니로 하여금 영아에게 적절하게 반응하고 온정적으로 대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가 외부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받을수록 자녀양육에 의한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며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들(Baker-Ericzen et al., 2005; Kirham, 1993; Lee, 2008; Singer et al., 1999; Yune & Oh, 2010) 및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어머니들이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보인다는 일련의 연구결과들(Abidin, 1990; Kim & Moon, 2005; Kim & Kwak, 2004)과 일관한 결과이다. 이와 같이 사회적 지원은 빈곤이나 발달장애와 같은 특정한 어려움을 겪는 어머니들의 심리적 건강성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일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할 때에도 심리적 건강성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영아기 시기 어머니의 경우 가족구조와 가족구성원 간의 관계 및 역할변화까지 겪는 급격한 삶의 변화와 처음 경험하는 양육의 경험으로 인해 다른 시기보다도 더 많은 양육스트레스를 겪게 된다는 점에 근거해 볼 때(Song & Kim, 2008), 어머니가 가정 외부로 받는 정서적, 도구적, 사회적 정보적 지원은 우리나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Belsky(1984)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을 꼽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지원이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을 제안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원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의해 연결된다는 본 연구결과는 Belsky(1984)의 양육행동의 결정적 요인 가설을 경험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사회적 지원은 어머니의 우울을 매개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지원은 어머니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거나 어머니의 우울 정도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가 외부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받을수록 산후 우울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Leahy-Warren, McCarthy, & Corcoran, 2011) 및 사회적 지원이 어머니들의 우울 정도를 낮춘다는

연구결과(Chun, & Ok, 2011; Kim & Kim, 2008; Lee, 2008)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어머니의 우울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우울한 어머니가 자신에게 몰입해 있어 아동의 요구에 민감하고 따뜻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Crnic and Greenberg(1985)의 연구, 우울한 어머니들이 돌발적이며 통제적이고 과다 자극적인 방식으로 영아와 상호작용을 하거나 수동적이고 자극이 부족한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거나 부적절한 방식으로 영아와 상호작용하는 등 적절하지 못한 양육행동을 보인다고 한 연구들(Cohn et al., 1986; Field et al., 1990; Malphurs et al., 1996), 그리고, 우리나라 어머니와 영아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산후 우울 성향이 높은 어머니들이 낮은 어머니들 보다 덜 긍정적이고 침해적인 반응을 하였으며 이에 영아도 덜 반응적이고 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Lee et al.(2011)의 연구, 우울 성향이 높은 어머니들이 꼬집거나 거친 상호작용을 하였다는 Kim and Kwak의 연구(2005)와도 일관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가 본 연구와 일관하지 않은 것은 영아 어머니의 우울의 정도 차이에 근거한 것일 수 있다. Lee et al. (2011)의 연구에서는 일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영아 어머니의 우울 성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비교하였고, 우울 성향이 높은 집단에서 어머니의 정서가 낮고 침해정도가 심하며 칭찬과 주의집중, 발달적 민감성 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상관분석 결과 어머니의 민감성과 온정성과의 관계는 나타났으나, 어머니의 우울 정도가 5점 기준으로 1.16으로 아주 낮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일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낮은 수준의 우울 정도로 인하여 어머니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을 수 있다고 본다.

한편, 사회적 지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이 연결된다는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적 지원, 양육스트레스 각각의 영향력 및 그 중요성을 확인하게 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Figure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β 값을 중심으로 해석해 볼 때 어머니의 양육행동에는 양육스트레스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영아기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양육스트레스가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우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어머니의 우울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우울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선행연구들(Kim & Kwak, 2005; Lee et al., 2001)을 통해 볼 때 어머니의 우울은 어머니의 양육행동 나아가서는 영아의 발달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본다. 이때 어

머니의 우울은 양육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원으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에 의해 경감되거나 혹은 악화될 수도 있으며, 가족 외의 친구나 친척 등으로 받는 다양한 지원책에 의해 어머니의 우울 정도가 경감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역시 사회적 지원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어머니가 가족 이외 친구나 친척 등으로 받는 다양한 지원책에 의해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가족 외 친척이나 친구, 사회복지 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정서적인 도움과 양육에 대한 정보, 경제적인 지원들은 어머니의 심리적 건강과 함께 어머니의 양육행동, 나아가서는 영아의 건강 및 복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함으로써 어머니의 정신건강을 돕고 영아의 발달까지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어머니와 영아를 위한 아이돌보미 보급, 양육수당 등의 양육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은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국가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우울을 경감시킬 수 있는 사회적 지원책의 마련으로 영아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건강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을 경감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역시 양육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어머니 대상 중재프로그램이나 양육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어머니의 정신건강과 영아의 발달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확대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근거로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변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변인들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행동에는 영아의 개인적 변인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나 영아의 개인적 변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아의 성이나 출생 후의 경험, 기질 등 영아의 개인적 변인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영아의 개인적인 다각적인 변인들을 포함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해 어머니의 자기보고식의 질문지를 통해 측정하였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관찰을 통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10개월 미만의 영아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을 우리나라 어머니와 영

아를 대표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탐구하여, 영아 발달 및 영아 어머니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현 상황에서 영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맥락적 요인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REFERENCE

Abidin, R. R.(1990).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the stresses of parenting.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4), 298-301.

Abidin, R. R.(1990).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PSI/SF)*.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Ahn, O. S.(2004).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postpartum depression among mothers during puerperium*. Thesis of Master, Dongkuk University.

Armstrong, M., Birnie-Lefcovitch, S., & Ungar, M.(2005). Pathways between social support, family well being, quality of parenting, and child resilience: What we know. *Journal of Child & Family Studies, 14*(2), 269-281.

Belsky, J.(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Bornstein, M. H., Tamis-LeMonda, C. S., Pascual, L., Haynes, M. O., Painter, K. M., Galperin, C. Z., & Pecheux, M. G.(1999). Ideas about parenting in Argentina,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 Development, 19*(2), 347-367.

Cho, B. E., Cuh, D. I., Shin, H. Y., & Chung, H. S.(1998). The impact of coping responses on positive changes of single mothers and their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6*(1), 13-21.

Chun, H. Y. & Ok, K. H.(2011). Analyz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changes in postpartum depression and child-rearing system variables in Korean mother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9*(6), 153-167.

Cohen, S., Syme, S. L.(1985). *Issues in the study and application of social support*. N.Y.: Academy Press.

Cohn, J. F. Matias, R., Tronick, E. Z., Connell, D., Lyons-Ruth, K.(1986). Face-to-Face interactions of

- depressed mothers and their infants. In: Tronick, E., Z., & Field, T. (Eds.), *Maternal Depression and Infant Disturbance*. Jossey-Bass, San Francisco, pp. 31-45.
- Commission on the Family(1998). *Strengthening Families for Life: Final report to the Minister for Social and Community and Family Affairs*. Government Publications, Dublin.
- Cox, M., Owen, M. R. & Lewis, J. M.(1989). Marriage, adult, adjustment, and early parenting. *Child development* 60, 1015-1024.
- Crinic, K. A., Gaze, C., & Hoffman, C.(2005). Cumulative parenting stress across the preschool period: Relations to maternal parenting and child behavior at age 5.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4, 117-132.
- Field, T., Healy, B., Goldstein, S., & Guthertz, M.(1990). Behavior state matching and synchrony in mother-infant interactions of nondepressed versus depressed dyads. *Developmental Psychology*, 26, 7-14.
- Lin, N., Dean, A., & Ensel, W. 1986. *Social Support, Life Events, and Depression (Eds.)*. N.Y.: Academic Press.
- Kessler, R. C., Andrew, G., Cople, L., J., Jiripi, E., Mroczek, D. K., Normand, S. L. T., Waters, E., E., & Zaslavsky, A.(2002). Short screening scales to monitor population prevalence and trends in non-specific psychological distress. *Psychological Medicine*, 32(6), 959-976.
- Kim, K. H. & Kang, H. K.(1997). Development of the parenting stress scal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5(5), 141-150.
- Kim, M. S. & Moon, H. J.(2005).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Efficacy on Parenting Behaviors in Mother with Young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3(8), 25-35
- Kim, S. C. & Kwak, K. J.(2004). The difference in touch patterns of infants at 6 months: on the mothers' level of depression, parenting stress, anxiety, feeling of touch and self-concept.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7(3), 1-23.
- Kim, S. C. & Kwak, K. J.(2005). The relations among mother's touch patterns and mothers' internal states, and touch situations in infants at 6 months: On the depression, anxiety, parenting stress, feeling of touch, and self-concept.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8(2), 1-21.
- Koeske, G. G., & Koeske, R. D.(1990). The buffer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parental stres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0, 440-451.
- Kwon, J. H.(1997). A test of a vulnerability-Stress model of postpartum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6, 55-66.
- Kwon, M. K., Kim, H. W., Kim, N. S., & Jang, J. A.(2006) Original Articles : Postpartum Depression and Maternal Role Confidence, Parenting Stress, and Infant Temperament in Mothers of Young Infa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12(3), 314-321.
- Leahy-Warren, P., McCarthy, G., & Corcoran, P.(2011). First-time mothers: social support, maternal parental self-efficacy and postnatal depression, *Journal of Clinical Nursing*, 21, 388-397.
- Lee, J. R. & Ok, S. H.(2001). Family life events, social support from children,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low-income female earner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9(5), 49-63.
- Lee, J. Y., Lee K. S., Chung, Y. K., & Shin, Y. J.(2011). An analysis of interactions between mothers with postpartum depression tendencies and their infants. *The Korean Journal of Child Development*, 32(3), 203-220.
- Lee, K. S.(2011). Exploring variables related to parental style of infant's mother.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8(3), 127-145.
- Lin, N., Dean, A., & Ensel, W.(1986). *Social support, life events, and depression (Eds.)*. N.Y.: Academic Press.
- Maccoby, E. E. & Martin, J. A.(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E. M. Hetherington(Ed.), P. H. Mussen(Series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pp.1-102). N.Y.: Wiley.
- Malphurs, J. E., Raag, T., field, T., Pickens, J., & Pelaex-Nogueras, M.(1996). Touch by intrusive and withdrawn mothers with depressive symptoms. *Early Development and Parenting*, 5(2), 111-115.
- Mercer, R. T.(1985). The process of maternal role attainment over first year. *Nurturing Research*, 34, 198-203.

- Moon, H. J.(2008). Analysis of trends in research on parent-child relationship. *Journal of Child Studies*, 29(2), 15-31.
- Reis J., Barbera-stein, L., & Bennet, S.(1986). Ecological determinants of parenting. *Family Relations: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pplied Family Studies*, 35(4), 547-554.
- Shin, N. R.(2010).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Pre and Postnatal Depressive Symptoms of Korean Women. *Annual Conference of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Book* (pp. 313-329) Seoul. Korea.
- Son, S. H., Lee, Y. S., Bae, S. Y., Han, C. H., Yoo, J. Y., Lee, M. J., & Cho, H., R.(2010). A study of related factors to parenting stress of employed and non-employed mothers-focus on 4-9 months infant mother's emotional cognitive characteristics, marital relationship and social support. *Annual Conference of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Book* (pp. 663-682) Seoul. Korea.
- Song, Y. S. & Kim Y. J.(2008). The effects of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knowledge on parenting self-efficacy: A comparative study between infant and early childhood mother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3(3), 181-203.
- Stevenson, M. L., Henderson, T. L., & Baugh, E.(2007). Vital defenses: Social support appraisals of black grandmothers parenting grandchildren. *Journal of Family Issues*. 28, 182-211.
- Williams, A. W., Ware, J. E., Donald, C. A.(1981). A model of mental health, lif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pplicable to general population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 324-336.
- World Health Organisation (2005). *The World Health Report 2005: Make Every Mother and Child Count*. World Health Organisation, Geneva.
- Yang, H. Y.(2010).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mother-infant interactive behavior*. Thesis of Master. Ulsan University.
- Yune, H. & Oh, K. J.(2010).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parenting stress among families in poverty: focused on children's age and environmental risk factors.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5(4), 673-689.

- 접수일 : 2012년 03월 15일
- 심사일 : 2012년 04월 08일
- 게재확정일 : 2012년 05월 29일